

한국학 이슈

분업과 연대, 학술 공공성의 새로운 형식들

한국현대문학 편집인의 열린 대화

김병준 · 유인혁 · 김화선 · 최성민 · 허민석 · 배하은 · 김완중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학』은 앞으로 한국학의 이념, 경험, 제도 등을 성찰하는 다양한 주제의 좌담회를 기획해 지면에 소개할 예정이다. 그 시도의 일환으로 지식 생산 제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지식공유연대 주최의 좌담회를 이번 호에 실는다.

좌담회 개요

일시: 2024년 8월 24일 (토) 14:00~18:00

장소: R커먼즈 합정 지식공유연구자의 집

사회: 김병준 (지식공유연대 공동회장)

패널: 유인혁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편집위원)

김화선 (어문연구학회 편집위원장)

최성민 (대중서사학회 편집위원장)

허민석 (상허학회 편집간사)

배하은 (민족문학사연구소 편집위원)

참관: 김완중 (지식공유연대 공동회장/KISTI 센터장), 이재용(비타소프트 부 사장) 등

이 좌담회는 제1회 현대문학자대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마련한 자리로, 한국 학술 환경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다양한 분과의 학회와 학술지는 KCI 등재지 중심의 평가 시스템에 맞춰 운영되면서 짧은 심사기간, 투고율 관리의 압박, 학회별로 상이한 편집 양식과 저작권 정책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특히 소규모 학회들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2년마다 바뀌는 임원진 체제하에서 지식과 노하우의 지속적인 축적과 공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 환경으로의 급격한 전환과 AI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문학 분야의 학술지 편집인들이 모여 공통의 고민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는 학술 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좌담회는 학술 출판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오픈액세스 전환, 학술지논문투고관리시스템 JAMS의 도입, AI 기술과 학술 데이터 활용 방식의 다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학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 편집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논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I. 참여자 및 학회

각 학회의 편집인들은 학술지 편집 과정에서 각기 다른 고민과 도전과제를 갖고 있었다. 대중서사학회와 리터러시학회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성민 위원장과 국제한국문화학회(사이)와 민족문화사연구소의 편집위원인 유인혁 위원은 복수의 학회 활동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편집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처럼 여러 유형의 학회 경력을 가진 참여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겪은 학술지 편집의 실무적 고민과 비전을 나누며, 한국 현대문학계 학술지 편집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특히 학회의 성격과 규모, 역사에 따라 편집 과정의 체계화 정도가 다르고, 직면한 과제도 제각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예컨대 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 여러 분과를 포괄하는 종합 학술지의 경우, 논문을 게재할 때 발생하는 학술적 스타일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



지식공유연대 ‘한국현대문학 편집인의 열린 대화’

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익명의 온라인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희 학회도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분과가 모두 있는데, 전공별로 편집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학에서는 내각주를 사용하는 데, 이 방식을 현대문학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일 학술지 안에서 편집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학문 분야별 특성과 전통을 존중해야 하는 관행과 충돌한다. 다학제적 연구가 증가하는 최근의 경향에 비춰볼 때 통합된 편집 지침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분야별 특성을 존중하되,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여 학회 분류

- 어문연구학회: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3분과가 모두 포함된 국어국문학 관련 종합학회
- 상허학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현대문학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
- 대중서사학회: 광범위한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융합·확장형 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 및 현대문학을 다루는 학회

II.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 분담

김화선 어문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은 학회마다 편집위원회 구성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편집위원회가 학술지 발간 및 논문 투고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학술지 간사’라는 명목으로 대학원 졸업생이나 신진 연구자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는 ‘그림자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의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에게 과부화된 노동을 떠안기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업무를 나누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편집 업무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분업과 협동을 위해 어문연구학회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줌 회의를 열어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관례화하였다고 한다. 그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자 배정도 편집위원들이 카톡이나 전화로 직접 확인하고, 간사는 실제 시스템 배정과 실무를 담당하도록 분리했다”며 실무적인 역할 분담 사례를 소개했다.

2. JAMS 시스템과 편집 업무 전문화

유인혁 국제한국문화학회 편집위원은 학회들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학회 운영이 점차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의 전문성에 따라 책임 편집위원을 배정하고,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은 위촉하고 섭외하는 일을 맡게됩니다.”

특히 JAMS와 같은 투고 시스템 도입이 이러한 분업화를 더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편집이사, 간사들의 업무가 JAMS 시스템의 업무 체계 순서에 따라 분담됩니다.”

그러나 JAMS 시스템 활용 방식은 학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부 학회는 JAMS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다른 학회들은 투고자나 심사자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편집간사가 회원가입부터 투고 및 심사평 탑재까지 대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투고자와 심사자는 각자 편집위원회와 이메일로만 소통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JAMS를 통해 투고하거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여러 계정이 생성되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모든 학회가 JAMS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KISS나 DBpia 등이 제공하는 투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학회들도 있어 논문 투고 경로는 더욱 복잡해졌다.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한국연구재단의 KCI 등재(후보)지 중 상당수가 JAMS를 온라인 투고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분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특히 대학원에 재학 중인 편집간사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었으며, 그런 경험을 했던 연구자들이 오늘날 편집위원장이거나 편집위원이 되어 노동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학원생 시절에, 학회가 막 생기던 시기나 학술진흥재단의 요구로 시스템이 급변할 때, 간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동이 집중되었는지 경험한 분들이 이제

편집이사 지위에 올라와 ‘그림자 노동’ 문제에 더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온라인 투고 시스템의 도입은 학술지 편집 과정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촉진하지만, 그 과정에서 편집간사에게 업무가 과중된다는 점은 여전히 많은 학회의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III. 편집 과정의 어려움

1. KCI 시스템과 촉박한 심사 일정

패널들은 KCI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학술지 발간 시점과 짧은 심사 일정을 편집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로 꼽았다. 배하은 민족문학사연구소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입장에서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학회들은 너무 짧은 심사 기간을 제공합니다.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해당 논문이 인용한 다른 논문들도 살펴보고 비교 검토해야 하는데, 촉박한 일정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학술지 품질과 직결된다. 배하은 편집위원은 빠박한 심사 일정이 심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에 편집 과정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일정의 문제를 넘어, 학술지의 질과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경계선에 있는 논문, 즉 약간의 수정으로 게재가 가능한 논문도 시간의 제약

때문에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후재심’이나 ‘수정후게재’ 판정을 내려도 저자가 기한 내에 적절히 수정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학술지 발간 주기와 투고율 관리 문제

사회자 김병준은 KCI 등재지 유지를 위한 투고율 관리 압박 역시 학술지가 당면한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유인혁 편집위원은 “발행할 만큼의 논문이 모이지 않으니 계속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배하은 편집위원은 투고율 압박이 논문의 질을 관리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학회들이 투고율 때문에 재연장, 재재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KCI 등재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투고율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에 당면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자 김병준은 해외 학술지의 온라인 퍼스트(Online First)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발간 방식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연한 발간 방식은 투고율 압박과 촉박한 심사 일정으로 유발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할만 하나, 현행 KCI 시스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해외 학술지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즉시 온라인에 게시하고, 일정 수가 모이면 그 해의 1호, 2호로 발행하는 온라인 퍼스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유연한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여야 합니다.”

IV. 학술논문 양식과 참고문헌의 통일 문제

1. 학회별 상이한 논문 양식

익명의 온라인 참여자는 학술지마다 요구하는 논문 양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투고할 학술지가 정해지기 전에는 메모장에 글을 작성하고, 투고처가 결정된 후 해당 학술지의 양식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성민 대중서사학회 편집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투고하는 종합 학술지의 경우, 논문 양식을 통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중서사학회는 복합학 분야로서 문학, 영화, 연극, 웹툰,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이 투고합니다. 각 분야마다 논문 작성 스타일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지만,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통된 양식을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식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경험에 대하여 설명했다.

“편집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번째로 추진한 일이 양식 샘플의 보완이었습니다. 2페이지 짜리 샘플을 5페이지로 확대하여 다양한 인용 사례들을 상세히 담고자 했습니다.”

그는 인용 방식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영문 저작의 경우 책 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 문학 작품은 더 복잡합니다. 소설을 인용할 때 그것이 단행본인지, 단행본 제

목이 소설 제목과 같은지, 또는 다른 책에 수록된 작품인지에 따라 인용 기호가 모두 달라집니다. 영화의 경우도 제작사를 앞세울지, 감독을 앞세울지, 원제를 사용할지, 번역된 제목을 사용할지 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양식을 통일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투고 양식을 아예 무시한 채 원고를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2. 참고문헌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의 부족

사회자 김병준은 한국의 인문학 연구자들이 참고문헌 관리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학 연구자들, 특히 HWP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Endnote, Mendeley, Zotero와 같은 참고문헌 관리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APA, Chicago, MLA와 같은 인용 스타일을 쉽게 변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수작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노력으로 DBpia의 ‘사이티지(Citeasy)’ 서비스를 언급하며, “아직 사회과학 분야 위주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술적 지원이 인문학 분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3. 출판사와의 소통 문제

최성민 편집위원장은 출판사와의 소통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최종 편집은 출판사에서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편집간사가 개입하여야만 합

니다. 출판사는 기술적인 편집에는 전문적이지만, 학술 내용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인용 대상의 특성에서 비롯된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위 진술은 학술지 출판의 전문성 문제를 드러내는 지점으로, 편집 과정에서 출판사와 학회 간의 책임과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실상을 보여준다. 특히 학술지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깨뜨리는 출판 전문 인력의 부족은 국내 학술 출판 환경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었다.

V. 학술 데이터 관리와 OA 현황

1. 학회별 데이터 관리 방식

허민석 상허학회 편집간사는 담당 학회의 학술 데이터 관리 방식을 소개하였다.

“상허학회는 홈페이지에 학술지 원문 파일과 메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KCI와 RISS에도 논문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화선 편집위원장도 학회 활동에서 경험한 사례를 공유했다.

“과거에는 출판된 학술지를 박스채로 보관했는데, 2년마다 임원진이 바뀌기 때문에 보관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쇄하지 않고 클라우드 시스템과 외장하드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으며, 주로 편집간사가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직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실상을 반영한다.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학회 임원진이 지식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는 학술 정보의 접근성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지목되었다.

2. KCI 워터마크 문제와 저작권 충돌

김완중 KISTI 센터장은 KISTI에서 KCI 워터마크 제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연구재단이 학회의 동의 없이 논문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술 데이터의 효율적 공유와 관리를 위해 학회와 한국연구재단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학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연구재단이 학회의 동의 없이 원문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은 2차 저작물 생성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도 저작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KISTI에서는 KCI에서 다운로드 받은 논문 PDF 파일에서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KCI와 기관 리포지터리에 각각 별도로 논문을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매번 감수하고 있습니다.”

3. 오픈액세스(OA) 전환 과정의 어려움

오픈액세스 전환의 어려움도 부각되었다. 허민석 편집간사에 따르면 상허 학회는 OA 전환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입력과 같은 추가 작업을 수행하여야만 했다. 한편 김완중 센터장은 OA 저널이 CC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국내 학술지의 다수가 명확한 저작권 정책이나 라이선스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 아카이빙’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프리프린트나 포스트프린트 정책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OA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VI. 논문 저작권 운영 및 현황

1. 저자 저작권 유지 모델

최성민 편집위원장은 대중서사학회에서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모델을 채택했다고 언급하였다.

“대중서사학회는 OA 전환을 시도하면서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학회는 복제권·전송권·배포권을 포함하는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만 받는 형태입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의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단행본이나 다른 출판물에 재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 학회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므로 학회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고 안내합니다.”

저자 중심 저작권 모델은 학술 공공성과 저자의 권리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대안으로, 특히 OA 환경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최성민 편집위원장

은 이러한 방식이 향후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있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CC 라이선스와 저작권 정책

김완중 센터장은 원문에 저작권 정보와 라이선스 정보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sevier와 같은 상업 출판사의 논문의 경우, 페이지 하단에 저작권 소유자와 CC BY-NC-ND와 같은 라이선스 정보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시적 표기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상업 출판사와 OA 출판사의 라이선스 정책이 어떻게 다른 지 설명했다.

“상업 출판사는 주로 CC BY-NC-ND와 같이 상업적 이용과 2차 저작물 생성을 제한하는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반면 *PLOS ONE* 같은 OA 저널은 CC BY처럼 좀 더 개방적인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국내 학계에서는 저작권 정보 표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 표기의 불명확성은 저작권 관리와 활용에 혼란을 초래하며, 특히 AI 시대의 학술 생태계에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많은 국내 학술지들이 CC 라이선스는 표시하지만 저작권 귀속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외부에서는 학회에 저작권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공유연대 ‘한국현대문학 편집인의 열린 대화’

3. 텍스트 마이닝과 AI 학습 데이터 활용

김완중 센터장은 저작권 정책이 텍스트 마이닝(TDM)과 AI 학습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최근까지 텍스트 마이닝 허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출판사와 저널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으니 허용된다’는 입장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으니 금지된다’는 입장이 대립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저작권 문제에서 시작해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AI 학습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20년 넘게 동일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학술 출판의 근본적인 가치와

관련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학술지 편집인들이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명확한 저작권 정책과 라이선스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을 시사했다.

4. 연구윤리와 AI 관련 문제

김화선 편집위원장은 AI시대 연구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언급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연구윤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표절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논문을 쓸 때 AI가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AI 활용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개별 학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윤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에 학회 간의 협력을 통해 공통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이어졌다. AI를 활용한 학술 활동이 초래할 문제점과 함께, 연구 과정의 투명성, 연구자의 자발성, 학술적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VII. 학술지 편집인 협의체 구성

1. 편집 과정 공유를 위한 협의체

김화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인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학술지 편집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구윤리, AI 기술 활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하은 편집위원도 편집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컨대 JAMS로 투고 및 심사 절차가 전환되었을 때 마주하였던 경험, OA 저널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겪은 일 등 실무적 노하우가 학회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여성문학학회의 사례를 들어, OA 저널 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CC 라이선스 적용상의 혼란을 지적하였고,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기술적 지원과 표준화

허민석 편집간사는 JAMS 사용법 공유와 표준화된 각주 표기법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편집간사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JAMS 사용법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표준화된 각주 표기법이 있다면 편집 과정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완중 센터장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7개 저널이 인용 스타일과 논문 템플릿을 통일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른 인문학 학술지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MS Word나 한글 대신, 온라인에서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여러 저널의 편집인들이 모여 인용 스타일과 논문 템플릿을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자가 A 저널에서 B 저널로

투고처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논문을 여러 저널에 투고할 때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3. 편집간사 권리 증진

허민석 편집간사는 편집간사의 노동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술지 발간 형식의 변경, 뉴스레터 제작, 학술지 리뷰 코너의 신설 등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편집간사의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김화선 편집위원장도 편집간사의 ‘그림자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업무 효율화의 문제를 넘어 학술 커뮤니티 내 노동 윤리와 지속가능한 학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편집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과 노동 환경의 개선이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특히 학회 임원진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편집간사의 축적된 지식과 전문성은 학술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 조건 개선은 학술 공공성 강화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었다.

4. 학술지 발송의 새로운 형태

허민석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송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논문 읽기 환경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확장되었기에 논문 게시와 발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회 회원들에게 논문을 보내는 것을 넘어, 학술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학술지 리뷰와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과 같은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제안했다.

“학술지 리뷰를 통해 ‘이번 호에서 우리가 잘한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을 공유하거나, 뉴스레터 형태로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더 많은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같은 견해는 디지털 시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에 맞춰 학술지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귀기울여야 하는 제안이자,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과 인문학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5. 편집인 협의체의 구체적 운영 방안

김완중 센터장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의 사례를 들어 편집인 협의체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편협은 한 달에 한두 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연구윤리, AI 활용과 같은 주제를 두고 논의합니다.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유료 세미나로, 회원은 10만원, 비회원은 20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있습니다.”

배하은 편집위원은 협의체가 반드시 대규모로 출범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편협도 처음에는 5개 정도의 학회가 모여 시작했지만, 꾸준히 활동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도 확대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점차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한국 현대문학 분야에서 편집인 협의체를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구윤리, AI 활용, 저작권 문제 등의 이슈가 부상하는 학술 환경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가질 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VIII. AI 기술과 학술 연구의 미래

1. AI 학습 데이터와 학술 논문

사회자 김병준은 ‘2024년 초거대 AI 기반 학술 활동 지원 사업’을 소개하면서 학술 논문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현황을 설명했다.

“과기부의 ‘2024년 초거대 AI 기반 학술 활동 지원 사업’은 학술 논문, 오픈액세스 논문 데이터 등을 학습해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비타소프트 부사장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사업은 AI의 문화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한국에 대한 연구와 학술 성과가

글로벌 AI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AI 모델들은 미국 중심의 콘텐츠에 편중되어 있어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저작권과 데이터 활용 문제

김화선 편집위원장은 학술 데이터의 AI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OA로의 전환은 좋은 방향이지만, AI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모델에서는 개별 저자들로부터 어떻게 동의를 얻을 것인지, 학회가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중서사학회와 같이 저자가 저작권을 갖는 모델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수반되었다. 김완중 센터장은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학회들의 OA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학회나 연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3. AI와 학술 공공성

AI 기술 발전이 학술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게끔 하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이재용 부사장은 학술 공공성을 구현하는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기업은 단순히 영리 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 데이터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기업의 AI 개발 방향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 비타소프트가 제안한 거버넌스에 네이버와 같은 기업도 동참하였습니다. 학문적 가치를 지키고 사업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관리·감독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4. 연구자 주도성 강화 방안

배하은 편집위원은 연구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OA 전환에 참여하게 하려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공공성이라는 이상적 가치 제시뿐 아니라, 학회나 연구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거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혜택이 주어져야 진정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AI 시대의 학술 공공성이 단순히 기술혁신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적절한 보상 체계,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화선 편집위원장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이상적인 공공성이나 AI 발전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요구보다는, 연구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서비스 활용 권한 부여나 학회 운영상의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보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학술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연구자들과 AI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IX. 향후 과제와 전망: 학술 편집인 협의체 구성

사회자 김병준은 한국현대문학 분야의 편집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내년에 열릴 제2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편집위원회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인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려 합니다. 향후 어학이나 고전문학 분야로도 확장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편 김화선 편집위원장은 편집인 협의체 운영시 소외되는 인력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데이터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구윤리 위반이나 표절 시비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논의하되, 개별 학회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가 한국 현대문학계의 출판문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문초록

이 글은 지식공유연대 연례 심포지움의 일환으로 진행된 ‘분업과 연대, 학술 공공성의 새로운 형식들: 한국현대문학 편집인의 열린 대화’ 좌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좌담회에서는 현대문학 분야 5개 학회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 등이 참여해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편집과정의 어려움, 학술논문 양식 및 참고문헌의 통일 문제, 학술데이터 관리와 저작권 이슈, 그리고 AI 시대 학술지식 공유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학술지 편집인들이 당면한 실무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한국 현대문학계의 학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각 학회 편집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 환경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학술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회 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학술지 편집인 협의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투고일 2025. 3. 4.

계재 확정일 2025. 3. 7.

주제어(keywords) 학술지 편집(academic journal editing), 참고문헌 양식(reference formatting), 학술데이터 관리(academic data management), 저작권(copyright), 오픈엑세스(open access), AI 학습데이터(AI training data), 학술 공공성(academic publicness)

Abstract

Division of Labor and Solidarity: New Forms of Academic Publicness – An Open Dialogue with Editor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Kim, Byungjun, Yu, Inhyeok, Kim, Hwaseon, Choi, Sungmin, Heo, Minseok, Bae, Haeun
& Kim, Wan Jong**

This article summarizes the discussions arising from the roundtable titled “Division of Labor and Solidarity: New Forms of Academic Publicness – An Open Dialogue with Editor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held at the annual symposium of the Knowledge Sharing Alliance. Chief editors, editorial board members, and editorial staff from five academic societies related to modern literature participated in the roundtable. The discussion covered various topics, includ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editorial boards, challenges in the editorial process, standardization of academic paper formats and references, academic data management and copyright issues, and the future of academic knowledge sharing in the AI era. Throughout the discussion, academic journal editors shared the practical difficulties they faced, explored collaborative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scholarship in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proposed tangible improvements to the academic environment based on their experiences. Participants emphasized the need for solidarity among academic societies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rapidly evolving digital landscape and advancements in AI technology. Additionally, they proposed specific steps to establish a cooperative body among academic journal editors.